

지역 소식통



정채용 향우, 김제 방문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8일 죽산초 정채용 총동문회 명예 회장(신진교통 전무)이 연말을 맞아 시정을 방문해 고향사랑 기부금 3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정채용 회장은 재전주 동문회 또는 향우회를 맡아 오면서 김제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으며,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와 김제시의 발전을 위해 전국 향우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의 홍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희망2024 나눔캠페인 동참  
두드림, 백미10kg 100포기부

(유)농업회사법인 두드림(대표 박도영)은 18일 관내 저소득 가정을 위해 쌀달라미 김제시(시장 정성주)에 백미 10kg 100포(260만원 상당)를 기탁하여 나눔을 통해 사랑의 온도를 올리는 '희망2024 나눔 캠페인'에 동참했다.

박도영 대표는 "물가상승 등으로 경기가 어려워져 힘들어 하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백미를 기부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성주 김제시장은 "영양가득 백미를 기부해 주신 (유)농업회사법인 두드림에 감사드리고 기부해 주신 백미는 두드림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며 감사를 표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완주, 아동친화도시 어워즈서 특별상

## 군 단위 최초로 인증 정책 확산 선도 기여

아동친화도시 완주군이 2023년 아동친화도시 어워즈(CFC AWARDS, Change for Children)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18일 완주군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서울시 마포구)에서 열린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총회에서 10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모인 가운데 특별상을 받았다.

완주군은 지난 2016년 군 단위 최초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아 아동친화도시 정책을 선도해왔다.

특히, 전국에서 최초로 아동음부즈퍼슨사무소를 조성해 아동권리 문제에 총괄적으로 대응하고, 어린이청소년의회 및 아동권리영화제, 4차 산업혁명 지역문제 해결 프로젝트, 아동안전정책 공모전 등 아동·청소년의 활발한 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실제 정책으로 반영했다.

이외에도 아동친화도시 비전을 확산하기 위한 생태계 기본계획 수립 및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타 지자체와



18일 완주군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 열린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총회에서 10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모인 가운데 특별상을 받았다.

활발한 교류로 인식확산에 기여했다. 특별상과 함께 완주군청소년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성민 의장, 이한나 부의장이 아동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2022년부터 청소년의회에서 의장단을 수행해온 고성민·이한나 청소년의원은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사회변화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스스로해결단 등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노력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아동친화도시 10주년을 맞아 특별상을 받게돼 감회가 새롭다"며 "완주군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 김제,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 국비 요청 나서

## 국비 71억원 확보 총력

정성주 김제시장은 18일 소회의실에서 고병원성 AI 연속 발생에 따른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였다.

국·실·소장 등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고병원성AI 발생에 따른 상황 공유 및 방역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복구대책 등을 중점 논의하였다.

시는 지난 8일 최초 AI 발생이후부터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여 정성주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및 간부공무원들이 주말 휴일도 반납한 채 예방적 살처분, 내?외부 소독, 역학조사 등 선제적 대응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시는 방역차량 18대를 운영하여 철새도래지를 일제 소독하고 방역초소 21개소(거점 3, 소독통제 9, 대규모농장 9)를 설치하여 24시간 가동중이며 114농가에 전담관 48명을 지정하여 매일 전화회합 등 AI 확산 방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읍지면 밀집지역 주변 산란계 농가에 대한 현대식 랜더링 방식으로 신속하게 살처



정성주 김제시장은 18일 소회의실에서 국·실·소장 등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고병원성AI 발생에 따른 상황 공유 및 방역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복구대책 등을 중점 논의하였다.

분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보조비율(국비 80%)에 준하는 국비 71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등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전쟁 상황"이라며 "AI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농장 주변소독은 물론 매일매일 방역수칙 지도점검과 가금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살처분 잔존물과 침출수 관리를 강화하는 등 모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 '미세먼지 저감' 최우수기관

## 도내 14개 시군 대상 평가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전라북도 주관 "2023 미세먼지 저감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 이행, 친환경 자동차 보급 등 6개 부문 19개 지표를 토대로 실시되었다.

김제시는 △5등급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비상저감조치 현장 행정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홍보 및 단속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 분야와 생물성연소 저감분야에서 타 시군대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환경부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 중점 사업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 친환경 전기트랙터 R&D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12개 특화정책을 추진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제시를 비롯해 이번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3개 시군은 도지사 기관표창을 수상하며, 각 시군이 추진한 특화정책과 우수사례는 미세먼지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도내 14개 시군에 전파된다.

정성주 시장은 "부서 간 칸막이 없는 협업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여 미세먼지 없는 김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 완주군, 후계농업경영인 전폭 지원

## 청년후계농·후계농업경영인 모집

완주군이 농업 발전을 이끌 정예 농업인력 선발을 위해 청년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사업과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18일 완주군에 따르면 청년후계농과 후계농업경영인에 선정되면 세대당 최대 5억 원 한도의 농지구입, 시설설치 등을 위한 후계농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청년후계농 선발시 독립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3년간 매월 90만 원에서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조건은 후계농업경영인은 18세 이상~50세 미만, 독립영농경력 10년

이하(예정자 포함)이고,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18세 이상 ~ 40세 미만, 독립영농경력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이다.

청년후계농은 18일부터 대상자를 모집하며, 후계농업경영인은 26일부터 시작한다. 마감일은 내년도 1월 31일로 동일하다.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목제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온라인으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서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완주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완주=염재복 기자

# 김제시, 도 지방하천정비 평가 '우수기관'

## 하천 입간판 정비 선행서 호평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15일 전북도에서 실시한 2023년 하반기 지방하천정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하천시설물 및 불법행위 정비상황과 사업예산 집행률, 시군비 추가 확보에 및 도정현안 협조 추진사항 등에 대하여 종합 평가를 거쳐 김제시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시는 자체 지방하천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하여 제방사리부설, 하천 내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시설물을 집

중 단속했으며,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하천입간판 정비를 선행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두월천 등 10개소 지방하천에 대해 8억 8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하상퇴적토 준설, 제방정비, 제초 및 수목제거 등 하천 유지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해 하천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했다.

한편 정성주 시장은 "적극적인 지방하천 관리를 통해 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 확보와 재산 보호하는 등 쾌적한 하천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